이차전지 소재기업, 새만금에 1800억원 투자

에코앤드림, 새만금산단 1공구에 공장 착공… 이차전지 전구체 핵심소재 생산 예정

20일 새만금산단 1공구(오식도 산 38-5)에서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에코앤드림의 생산공장 착공식이 열렸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을 바탕으로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핵심소재 최적의 공급지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20일 새만금산단 1공구(오식도 산 38-5)에서 이차전지 소재기업인 ㈜에코앤드림의 생산공장 착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공사개요 및 경과보고, 대표이사 인사말, 주요내빈 축사, 시삽 및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된 착공식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에코앤드림 김민용 대표이사 및 국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업은 2022년 9월 30일에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새만금산단 제1공구 약 14.8만㎡(4만4,000평)에 1,8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건립하고 45명의 인력을 신규로 고용할 예정이다.

본래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후처리장치 생산기업으로 출발한 ㈜에코앤드림은 2008년부터 이차전지 양극활 물질 기술개발을 통해 최근 대규모 전기차용 하이니켈 니켈·코발트·망간(NCM) 전구체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요 이차전지 소재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올해 초 청주공장에서 전구체 생산을 시작으로 생산 물량을 확대하여 새만금에 1,800억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구축하고 2025년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착공식에 참석한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이차전지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는 전북 새만금에서 ㈜에코앤드림이 전구체 생산의 독보적인 기업 역량을 통해 글로벌 소재기업으로 도약하길 바란다."며, "㈜에코앤드림이 새만금에 무사히 정착하여 성장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에코앤드림의 군산 새만금 산단 전구체 공장 착공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간 이차전지 기업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해온 데 이어 에코앤드림 공장까지 착공된 것은 군산 새만금 산단이 글로벌 이차전지 밸류 체인의 핵심거점임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군산시는 투자기업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산단 내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허가, 인프라 구축 등 기업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소재들의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전구체는 배터리 4대 물질 중 하나인 양극재의 선행물질로 업계에서는 양극재 기업의 생산능력 대비 전구체 공급 부족이 예상돼 증설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전구체는 국내 생산비중이 13% 수준에 불과해 배터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내재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전구체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는 이차전지 분야의 안정적인 밸류체인 형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재훈기자·군산=김판곤기자

전북농협과 예수병원은 20일 예수병원 설대위기념관에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촌 왕진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전북농협-예수병원, '농촌 왕진버스' 업무 협약 체결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20일 예수병원 설대위기념관에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촌 왕진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이 이루어진 '농촌 왕진버스'는 지난해까지 진행한 농업인 행복버스의 후속 사업으로 고령·취약 농업인을 위한 의료진료, 구강검진, 검안·돋보기 등 농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 혜택을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영일 본부장은 예수병원과 "농촌 왕진버스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예수병원과 함께 전북지역 의료복지 사각지역에 있는 농촌지역 농업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 전북농협은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충식 병원장은 "예수병원이 1898년 마티 잉골드 선교사 설립 당시 노약자등 소외계층 의료 진료를 시작으로 병원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현재 꾸준히 국내외 의료봉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전북농협과 함께하는 '농촌 왕진버스'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고령·취약 농업인의 건강관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실익 사업으로 복지 접근성이 열악한 농촌지역 대상으로 의료지원, 등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옥기 기자

전북경진원,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사업화' 주관기관 3년 연속 선정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재창업 사업화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2024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사업화' 주관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경진원은 전북 권역의 희망리턴패키지 주관기관으로서 2022년부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진단 159개사, 멘토링 881회, 사업화 98개사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 해와는 달리 올해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지원범위가 확대되었다.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경영진단+경영개선교육+경영개선 사업화'와 '재창업교육+재창업사업화'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와 재창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재기 등 단계에 따라 총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개선 지원'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진단을 통해 경영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교육과 개선자금(최대 2천만원)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을 예방하고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창업 사업화'는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형 재창업을 유도하고 초기창업 도약을 지원하여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를 확장하고 최신 창업 트렌드 및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박람회 견학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선배기업 및 우수소상공인의 선진사례를 탐방하는 네트워킹과 성과공유회, 법률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계획중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매출액 감소, 저신용 소상공인 또는 특별재난지역·고용위기 등 특별지정지역 소재 소상공인이다. 2024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모집은 2월 말 모집공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윤여봉 원장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지역사회 발전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폐업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냄새 원인 물질 발생 사전 차단

농진청, 동물 분뇨 암모니아 차단 기술 산업체 이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은 충북대학교(윤여명 교수팀)와 공동 연구로 개발한 '동물 분뇨 암모니아 저감 조성물'을 특허출원하고, 21일 ㈜제로원에 기술이전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술이전 하는 '동물 분뇨 암모니아 저감 조성물'은 동물이 배설하는 요소(尿, 오줌)와 비슷한 구조로 생긴 요소 구조 유사체와 암모니아를 분해하는 질화균을 혼합한 분말 제제이다.

일반적으로 냄새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는 요소분해효소가 동물 분뇨 안 요소를 분해하면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 동물 분뇨 암모니아 저감 조성물을 넣으면 요소분해효소가 요소를 분해하기 전에 조성물과 먼저 결합해 암모니아로 바뀌는 화학 반응을 막아 암모니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원리다.

기술이전 업체 (주)제로원은 동물 분뇨 암모니아 저감 조성물을 활용해 동물 분뇨 냄새 저감제를 개발할 예정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기술이전 이후에도 전문 기술 상담(컨설팅)을 통해 현장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동물 분뇨 암모니아 저감 조성물'을 축산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올해 현장 실증을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국립축산과학원 자체 돈사, 하반기에는 양돈농가 2곳에서 실증하고 조성물 적정 투입량과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을 분석하고, 농가 적용 기준을 확립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